

제325호 2018년 3월 26일

4 서구소식



우리 함께
만들어요
살맛나는 으뜸서구

제 325호 2018년 3월 26일 | www.seogu.gwangju.kr

발행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편집 홍보실 전화 365-4114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옹성동)



온천호수의 희사한 봄 풍경 제1회 광주서구관광보도 사진전작품 // 무등일보 오세우기자

염주골 400년 애환 품은 마을 수호신

마을공동체 상징…소통과 정이 오가던 삶의 공간
영성 살아있는 신목(神木)…한양 조씨 설화 간직
주민 노력으로 당산나무 살려내…정자는 사라져

화정2동 당산나무(팽나무)

화정2동 아파트 단지와 상가 사이에 당산나무(팽나무) 두 그루가 광주시 보호수로 지정돼 아름드리 자리 잡고 있다. 팽나무는 수령이 약 400년으로 추정된다. 높이는 10m, 둘레는 2.7m에 달한다.

화정2동에 속하는 이곳은 500년 전 통을 간직한 자연마을 ‘염주골’이었다. 짚봉산을 에워싸고 있는 마을의 집들이 염주 알을 깨어놓은 듯 하다해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400여년 된 당산나무는 옛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팽나무 아래서 만난 올해 87세 된 마을의 두 할머니는 19살에 결혼해 이곳 염주골에 와서 친구가 됐단다.

“그땐 위낙 산중이었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그래도 꼭 저녁엔 여그나와서 놀다 가제. 여그서 모여서 음식도 나눠먹고 놀다보면 피로가 풀렸어”

두 할머니는 당산나무 아래에 쌓인 추억을 끝없이 이어간다. 고된 농사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쉼터가 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한 공간이었을 터다.

마을의 수호신이기도 했을 염주정이라는 당산나무는 지난 1995년 광주시 보호수로 지정됐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당산나무 주변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었던 팽나무 아래 운치 있는 정자는 사라졌다. 당산나무는 살려야 된다는 주민들의 간곡한 호소에 서구청이 당산나무 주변 부지를 사들여 나무는 안전하게



염주골 징표인 400년 팽나무. 그 고요한 품과 옹송깊은 그늘 안에 세워진 정자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편안한 ‘쉼’ 공간이 되고 있다.

보호받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대보름이면 당산나무 주위에 새끼줄로 금줄을 치고, 마을의 평안과 풍년농사, 동네 사람들의 화합단결, 가정의 만사형통을 빌며 당산제를 지냈다.

나이든 팽나무가 있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여름이면 동네 어른들이 모여 노는 그늘이었고, 한여름 열매는 아이들 간식거리였으며, 신목이었

던 노거수는 현재까지도 마을 사람들 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나누시던 할머니 건물들 사이에서 가지가 잘려진 나무를 안타까워한다. “여름에 와 봐. 잎이 무성해지면 얼마나 존지 몰라”하며 노거수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보인다.

높은 팽나무 아래에 정자는 사라졌지만, 쉼터 의자가 놓여 여전히 ‘쉼’ 공간이 되고 있다. 주민기자 임경희

‘독도가 궁금하면 저를 찾으세요’

독도 알리미 김덕삼씨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날이 갈수록 더해간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올리는가 하면, 최근에는 도쿄 중심에 독도전시관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주제 넘는 짓을 하고 있다.

서구 학생독립운동도서관에는 지난 2016년에 문을 연 호남 유일의 독도 전문 전시관이 있다. 독도전시관의 전시물은 훌륭하지만 글과 지도, 영상자료 전시만으로는 2% 부족하다. 관람자들이 느끼는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독도전시관에선 독도에 관해 설명해 주는 전문해설사(Docent)를 운영 중이다.

김덕삼씨는 독도 전문해설사 1기로 지난해 1월부터 독도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씨가 독도전시관에서만 독도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살고 있는 화정동 이웃에게는 물론,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독도를 알린다.

한자를 가르칠 때도 독도 역사와 한자를 연계해 융합교육을 한다. 덕삼씨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해서 주인인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막고 우리 땅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란다.

김씨는 ‘멀리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하고, 높은 데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데서부터 하라’는 뜻의 ‘행원필자이 등고필자비(行遠必自邇 登高必自卑)’라는 중용(中庸)의 글을 상기시킨다. 독도를 지키는 일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독도전시관을 찾아 독도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이라고 했다.

“서구에 호남 유일의 독도전시관이 들어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 기념탑, 김태원 의병장과 안중근 의사 등 상이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죠”

김씨는 시민들이 독도전시관을 많이 찾아와 나라 사랑하는 독도지킴이가 돼 주기를 바라고 있다. 주민기자 정규석

‘끼’를 찾아라, 다양한 경험으로!

새내기 직장인 김진선씨

김진선(24)씨는 새내기 직장인이다. 지난 2월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과 동시에 마륵동에 위치한 PR 에이전시 ‘더킹핀’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렸다. 진선씨는 그곳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보도자료 등을 개시해 기업 브랜드 홍보효과를 높여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진선씨가 극심한 취업을 뚫고 단박에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경험이 크게 한 몫 했다. 그녀는 매장 수납원 아르바이트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대학생기자로 활동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진선씨의 생각은 다르다. 그녀는 “숨이 떡까지 차오를 정도로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벼니 경제관념을 올바르게 깨우칠 수 있었고, 좀 더 성숙해 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그녀는 대외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대학생 온라인 방송국 ‘Uni-Bro’에 참여해 리포팅, 시나리오 작업, 기사작성, 방송편집 등 디자인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 기획부터 마감까지 큰 프로젝트를 경험했다. 그 곳에서 대학생활 안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세계를 접했다. 현재의 직장 또한 유니버시아드의 인연이 디딤돌이 됐다.

진선씨는 취업의 문을 넘었지만 자축하는 분위기에 젖어있지 않다. 오히려 그녀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더 세심한 준비와 노력으로 성실히 달리고 있다. 앞으로도 이어질 그녀의 도전을 응원한다. 주민기자 양미현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동네 유산이나 오래된 점포, 평범한 서구민 얘기를 전하고 싶은 분은 **으뜸서구소식 편집실(☎ 360-7584)**로 연락바랍니다.

들꽃

봄이다.
산과 들에는 꽃이 지천으로 피어난다.
사람이 씨 뿌리고 보살피지 않아도,
어디에 그 많은 꽃들을 준비해 놓았었는지,
자연은 들꽃을 키워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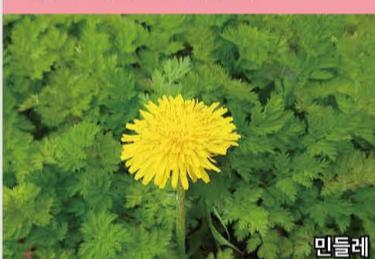
자주리불주머니

들꽃은 땅바닥에 낮게 피어난다.
들꽃을 지나는 바람도, 하늘도, 낮게 흐른다.
들을 지나는 우리도 머리 숙여 낮아지면,
보지 못하고 지나친 들꽃이 활짝 웃으며
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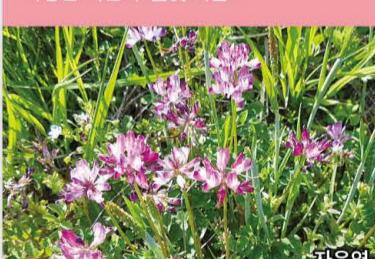
고깔제비꽃

이름을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만
사람이던가?
들꽃처럼, 들풀처럼, 이름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도 사람이다.
사람이라서 꽃보다 아름답다.



민들레

'이름 모를 들꽃도,
잘 알려진 꽂도,
꽃이라서 아름답다.'
이성진 시인의 '들꽃'처럼…



자운영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의 '들꽃'처럼,
우리 모두는 자세히, 오래 보아야 하는
들꽃이다.



주민기자 정규석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 정비 실시
불법주정차 방지 및 보행로 확보

서구가 염주초교 등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
는 사업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
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서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동점검을 실시하
였다.

협동점검에서는 스쿨존 내 보수가 필
요한 훼손된 교통표지판, 틸색된 횡단
보도, 파손된 보행자 훈스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후 회의를 통해 교통표지판을
정비하고, 횡단보도 재도색, 보행자 훈
스 보수,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보행
로 확보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서구는 점검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비 88백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



서구는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파손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한다.

역 내 노후 및 파손된 교통시설물을 정
비할 계획이다.

특히, 유덕초등학교 정문 앞 등 이면
도로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아이들
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U형 볼라드
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및 안전
한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시
설물 정비공사 이후에도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을 시행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18개 동 주민센터 순회 방문
자전거 안전점검 무료서비스

서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이동 수리센터를 운
영한다.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찾
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
터 뿐만 아니라, 주요 아파트와 복지
시설 등에도 직접 순회 방문을 실시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수리 전문가 4명이 18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자전거 안전점
검과 브레이크, 기름칠, 공기주입, 기
어세팅, 평크 등 간단한 경정비 서비
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튜브교체, 브레이크 수리 및 교
체, 기어줄 교체 등 비용이 수반되는
수리는 부품값 정도의 실비를 받는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일정은 3월 29일 금호1동 주민센터,
4월 3일 서창동 상무자이아파트, 4일
금호2동 주민센터, 5일 풍암동 주민
센터이다.

매주 3회 화, 수, 목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서구청 녹색
환경과(360-7894)로 문의하면 된다.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자연관찰, 다양한 체험시설 운영

서구가 찾아가는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삭막한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숲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와 기능을 알려주고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새줄다리, 거미줄타기, 통나무징검다리, 새집 짓기 등 10여
점의 다양한 체험시설과 계절에 따라 수목, 초화, 야생동물,
곤충 등 주제별 자연관찰 및 숲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는 초·중·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학교
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
청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와 공원녹지
과(062-360-7695)로 문의하면 된다.

‘야간 부부출산교실’ 운영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금요일

서구가 직장인 예비부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돋기 위한 ‘야
간 부부출산교실’을 운영한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임산부
의 올바른 산전·산후 관리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부부출산교실에서는 임신부의 모유수유 성공법, 태담 태
교동화, 건강한 먹거리 교육 등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부부가 함께하는 요가, 임신부 발관리 등 체험교육도
함께 병행하여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를 원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임
신부는 서구보건소 출산장려팀(062-350-4169)으로 문의하
면 된다.

유덕동, 맞춤형 복지로 사각지대 제로화 ‘박차’

방문상담·설문지로 돌봄이웃 발굴
민·관 협력 마을 복지공동체 모델

유덕동이 촘촘한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덕동은 올 초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고 신규 전입세대 방문상담과 1인 가구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벌였다. 방문 상담을 통해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발굴하며 상담 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웃과 친분이 없거나 지역자원 정보가 부족한 전입 세대엔 홍보문과 함께 욕구조사 설문지 등을 배포했다. 위기 사항에 대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문지엔 ▲최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절차 때문에 공

적급여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지 ▲건강 보험료, 전기료, 도시가스 등 공과금이 장기 연체 되고 있는지 등의 체크리스트를 담았다.

맞춤형복지팀은 설문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동 보장협의체도 각종 봉사활동과 나눔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유덕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노인·중증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찬찬찬~나눔’ 안부확인사업을 한다. 밀반찬 전달을 통해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서비스 연계 등으로 종합적인 사회적



유덕동 맞춤형복지팀이 방문상담 등을 통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민간 자원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을공동체 자체복지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다.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저소득·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인문교육의 이해와 신나는 다문화체험’을 진행한다.

다양한 역사·문화·인물 등의 도서를 읽은 뒤 독서 토론으로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는가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이

끌어내기 위해 이국적인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우리 동 전입주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 명품 강소기업

12 대농산업

(주)대농산업(대표 김성규)은 기와형 칼라강판과 부자재를 생산하고 지붕 시공을 하는 전문기업이다.

지난 1998년 서창동에서 출발한 대농산업은 고객제일, 품질제일, 나눔 실천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에 맞는 디자인과 기술로 지붕개량에 앞장서 아름다운 주거문화를 창출해 가고 있다.

김 대표는 20년 넘게 한 우물만 판 ‘장인정신’이 오늘날의 대농산업을 있게 한 비결로 꼽았다. 창업 이후 꾸준히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이 같은 노력을 특허청 디자인 등록과 각종

“한 번 시공으로 지붕 걱정 끝”



특히 획득으로 이어졌다.

주요 생산품은 새마을형 기와, 전통형 기와(불결형, 고기와형), 슬레이트형 강판 고기와. 각종 부자재와 비닐하우스 자재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설치하고 있다.

감각적인 디자인 제품은 물론 철저한 AS와 깔끔한 마무리로 대농산업의 기술력과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물량 수주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농산업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강판기와 생산·시공 전문기업
고객·품질 최우선…나눔 실천

이미지를 생명으로 삼는다.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나눔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훌륭 어르신에게 무료로 지붕을 고쳐주고 불우 이웃에겐 쌀을 기증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선행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선행이 알려지면서 서구청 표창패, 광주시 표창패, 건축사협회 감사패 등 각종 표창패와 감사패 등을 수상했다. ‘우리동네 착한일터 수호천사’ 현판도 받았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최상으로 제품과 앞선 시공 기술력으로 소비자가 항상 믿고 찾을 수 있는 대농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문의 : 360-7349

업체명	위치	모집인원	직무내용	경력/학력	급여조건	근무조건
광주산업용재 유통센타	매월2로 53, 3동 237호 관리사무소 (매월동)	1	경리 사무원	경력(2년)/ 대졸(2~3년)	월급 165만원	09:00~18:00 (주5일제)
에스아이 ENG(주)	서구 상무자유로 12-3, 에스아이아이엔지(주) (치평동)	1	총무 및 일반 사무원	관계없음/ 대졸(2~3년) ~ 대졸(4년)	연봉 2000만원	09:00~18:00 (주5일제)
신안방재 이엔지(주)	서구 유덕로51번길 15 (유촌동)	2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관계없음/ 학력무관	연봉 1888만원	09:00~18:00 (주5일제)
CHO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터미널 내 (광천동)	6	검표원	관계없음/ 학력무관	월급 180만원	08:30~08:30 (격일근무)
Y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서구 풍암2로 8, 한아름 빌딩 3층 와이필라테스 (Y-Pilates) (풍암동)	1	에어로빅, 요가 등 기타 스포츠 강사	관계없음/ 학력무관	월급 157만원	09:00~18:00 (주5일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서구일자리센터 ☎ 360-7349

<http://seogu.gwangju.kr>

서구일자리센터 거점동

화정1동 ☎ 350-4384 화정2동 ☎ 350-4405

화정4동 ☎ 350-4459 금호2동 ☎ 350-4518

풍암동 ☎ 350-4534 동천동 ☎ 350-4614

워크넷(구인·구직정보) ☎ 1577-7114

<http://www.work.go.kr>

광주고용복지 플러스센터 ☎ 609-8500

<http://www.work.go.kr/gwangju>

고용노동부(국번없이) ☎ 1350

<http://www.moel.go.kr>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엄마랑 아이랑 행복한 마을만들기

엄마들의 마을 활동 성장기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배움터

농성1동 - 좋은 생각

‘엄마표 교육’을 위해 같은 학교, 같은 반 엄마들이 모였다. 5명의 엄마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시작은 그랬다. 이렇게 3년.

이제는 ‘엄마들의 교육’이 됐다. 엄마들의 마을 활동 성장기를 그리고 있는 농성1동 마을 교육공동체 ‘좋은생각’이다.

아이들을 같이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던 중 생각보다 마을에는 많은 것들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도자기 공방부터, 남도전통음식연구소까지. 미처 몰랐던 것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을을 무

대 삼아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 놀았다. 열심히 놀던 내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학교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끌어내 마을이 학교와 함께 배움터로서 역할을 제공하기도 한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전통체험을 진행하며 엄마들은 다양한 자격증에도 도전했다. ‘제대로 배워 우리가 직접 아이들에게 알려주자’라는 생각에 전통떡 만들기 자격증부터 자기주도학습, 전래놀이 강사 자격증까지 엄마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계기가 됐다.

아이들이 다니는 광천초등학교는 지



마을교육공동체 ‘좋은생각’은 엄마들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마을의 나눔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형적 특성상 정문은 농성동, 후문은 양 3동 아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 때문에 공동체 활동도 마을별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벽을 깐 것이 ‘오카리나 발표회’였다. 서로 다른 마을이라며 참여를 꺼리던 엄마들이 오카리나 무대를 함께

준비하며 마음의 벽을 허문 것이다.

김선덕 대표는 “엄마들 스스로 노력하고 나날이 성장 했다”며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면서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단체

상록장수춤봉사단

춤사위로 건강과 즐거움 나누다



퇴직자, 예술봉사로 인생 2막
장수춤·난타·판소리 등 다양

춤사위 하나하나가 곱고 화려하다. 무대에선 그들이 70대란 평균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퇴직공무원으로 이뤄진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상록장수춤봉사단(단장 김송애)이다.

봉사단의 출발은 지난 2013년.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한국무용 등을 배웠다. 1년여 동안 구슬땀을 흘리다 보니 실력이 늘고 자신감도 붙었다. 수강생들 가운데 취미가 같고 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벌써 5년째다.

초심을 잊지 않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봉사단체 이름도 상록으로 정했다.

이들은 장수춤을 배우면서 단아한 자태와 가벼운 몸놀림으로 건강을 얻었다. 보다 멋진 무대와 알찬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광주학생회관과 빛고을 노인타운 등에서 주 4회 한춤과 장수

춤을 배우고 또 연습한다. 난타나 민요, 가요 등도 익힌다.

14명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주로 요양원과 지하철 역사 등에서 공연으로 재능기부를 한다. 춤 외에도 난타, 가요, 판소리, 민요, 치매예방체조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울러 선보인다. 종합예술봉사단체인 셈이다.

봉사단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각종 행사는 초청 무대에도 서고 있다. 지난 2014년엔 일본 초청으로 한일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해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600여 명의 중국인들이 광주에 방문했을 땐 빼어난 솜씨로 우리춤을 알렸다.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다보면 새로운 안무연습과 의상, 소품 등을 준비 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단다.

김 단장은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이 또 오라고 할 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경로당

27 화정 염주경로당

“회원들이 또 다른 가족이지라~”



경로당서 일상·여가생활 공유
매일 안위 확인…고독사 예방

화정 2동 아파트 뒷 한 가운데 자리한 주택가. 이곳 주택가 2층집에 아담하게 둑지를 튼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있다. 화정 염주경로당(회장 최지영)이다.

염주경로당을 이용하는 할머니들은 대부분 이름 석 자가 아닌 목포댁, 송촌댁 등과 같은 택호가 익숙한 동네 원주민들이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 염주골에 터를 잡은 뒤 6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매일 같이 서로의 얼굴을 맞대며 살았다. 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경로당 분위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회원 수는 33명. 대부분 80세다. 90세 이상의 어르신도 7명이나 된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식들은 시집, 장가를 가고 동반자도 세상을 떠났다. 주위에 건물은 높아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연락도 뜸해졌다. 80% 이상 ‘독거 노인’이란 고리표가 달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헐로 지내는 쓸쓸함

이 싫어 말동무가 있는 경로당으로 모여든다. 서로의 얘기를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다. 모두가 처지가 같은 이웃과 함께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매일 점심을 만들어 함께 식사를 한다. 많은 반찬은 아니지만 여럿이 먹는 밥은 꿀맛이다. 집에서 혼자 먹는 밥맛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서로의 안위도 확인한다. 하루라도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회원이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간다. 아직까지 고독사 같은 큰 사고 한 번 없는 경로당이 된 비결 아닌 비결이다. 한 어르신은 “피붙이끼리 사는 것도 가족이지만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또 다른 가족”이라며 든든해했다.

최 회장은 “회원 모두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서 “매일 25명이 넘는 회원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 쌀이 늘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주민기자 고희자

제 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회기 : 2018년 3월 16일 ~ 3월 21일(6일간)



제262회 임시회가 6일간 회기 일정으로 지난 16일 개회됐다. 서구의회는 회기동안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관련한 조례안을 심의한 뒤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조례안 심사·현장방문 활동

서구의회(의장 오광교)는 제262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열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10건, 동의안 3건 등 일반안건 13건을 처리했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 회기 결정의 건 보고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된 조례안 심사와 동의안 등을 채택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

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 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채택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서구 LED보안 등 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기획총무위원회는 19일 마륵 탄약고를 방문,

사회도시위원회는 20일 오전에 매월동 자전거 전용 차로 구간 및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 주변 등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사항이나 부족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오광교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현장방문 활동 등을 실시했다”며 “구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 등 생산적인 회의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빙기가 되면 도로,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 등 사고가 우려되므로 예상되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



기획총무위원회, 서창 마륵탄약고 방문



사회도시위원회, 매월동 자전거도로 구간 점검

서구의회 양 상임위원회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집행부의 사업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9일 오랜 기간 이전이 미뤄지고 있는 마륵탄 약고를 방문하여 탄약고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마륵탄약고는 십수년째 이전에 관한 계획과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는 20일 관내 주요 사업현장인 매월동 자전거 전용차로 구간과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공

사 주변을 방문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으로부터 사업 현황, 운영 전반에 대한 점

검을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민원의 근본적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의정뉴스



서구의회는 지난 20일 화정동 중앙공원 일원에서 식목일 기념행사로 편백나무를 식재하며 건강한 수목 가꾸기에 동참했다.

서구의회(의장 오광교)는 20일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쌍봉정 일원에서 구청 공무원 200여명과 함께 ‘제73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구의회 의원들은 중앙공원의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건강한 수목 가꾸기에 동참했다.

오광교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자연환경에 대한 소중함이 부각되는 오늘날 꾸준히 나무를 심고 가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서구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62회 임시회 화제의 조례안

대표발의
이동춘 의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 백종한, 이대행, 김옥수, 오광록, 김태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오광교 의원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에 설치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및 기준에 관한 내용 규정
-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내용 규정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김옥수, 오광록, 이대행, 백종한, 정순애 의원

1. 제안이유

지역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여한 지역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동원된 지역예비군의 급식 및 간식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대표발의
이대행 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장재성, 황현택,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의원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동주택 단지에 고용된 근로자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공동체 상생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공고하여 공모, 기관·회관·제작 사항을 통한 투명한 심의 규정
- 우수관리단지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 배점표 작성 및 사업계획의 심의기준 근거 마련, 불가피한 사정 시 사업계획의 심의 생략을 통한 사업추진성 확보
- 명확한 지원대상 규정을 통한 꼭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규정
-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부당대우에 대한 지원제한을 통한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

대표발의
김은아 의원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

공동발의 | 김옥수 의원

1. 제안이유

전통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건립한 서창한옥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창한옥문화관의 사업에 관한 내용 규정
- 구청장의 위탁운영 및 계약에 관한 내용 규정
- 수탁자의 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 규정
-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내용 규정
-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내용 규정

대표발의
오광록 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김옥수, 정순애, 김태진, 황현택, 윤정민, 이대행, 백종한, 오광교, 이동춘, 장재성 의원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수 및 강사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3조 2항의 단서 조항 삭제
-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기간 신설

대표발의
백종한 의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 이대행, 장재성, 황현택, 김태진, 윤정민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지원함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를 누리고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및 신고
- 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규정
-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지도·감독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

지난 2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자본인 ‘더블스티’에 해외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매각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중국 상하이차, 쌍용차의 이른바 ‘먹튀’ 사태가 반복될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전남지역 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그 가족까지 광주 전남 5만 명 이상 주민의 삶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이 경영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외면하고 가정과 회사,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묵과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나쁜 나라’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 전 의원 만장일치로(대표발의 김태진 의원) 채택됐다.

오명은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임무이자 역

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역대표기업의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중단하고 국책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둘째,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셋째,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2018. 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미세먼지 불안 뚫! 맑은 숲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집중 점검 도로 물청소·분진흡입 청소차 풀가동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 공포가 또 다시 찾아오고 있다. 봄철 황사는 계절적인 현상이라지만 미세먼지는 사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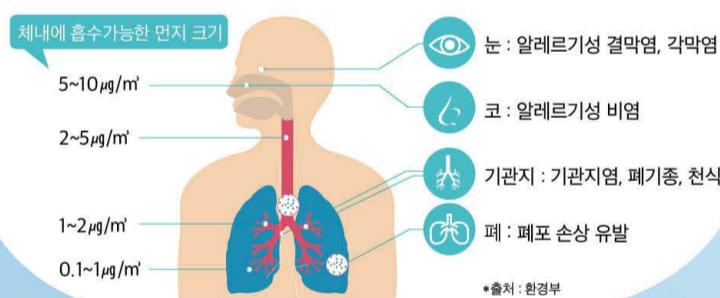
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며 국가적 난제다. 미세먼지와 황사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진 대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ガ스, 발전소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혹은 요리 과정이나 흡연으로부터 발생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중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보다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라 하고, 2.5μm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미세먼지, 왜 위험한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이 아주 미세한 초미세먼지 입자로 바뀌기도 한다.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생활수칙

-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 외출 시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마스크 착용
 -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충분한 수분섭취
 -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씻어 먹기
 -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
- *출처 : 환경부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흡입을 막는 것이다.

외출 후에는 몸에 미세먼지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세면을 자주하고, 흐르는 물에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나리, 마늘, 녹차, 브로콜리 등이 있다. 미나리, 마늘, 녹차, 브로콜리 모두 중금속 및 독소를 배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반응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뉘는 서구 대책 가동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우리동네 대기질'
검색하여 설치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실시간
대기질, 기온 등
정보제공



대기질 예보,
지역별 경보
발령현황 제공

미세먼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자

★ 실시간 미세먼지 SMS알림

대한민국 국민라면 미세먼지경보가 발령이 되면 언제든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가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보건환경 연구원 사이트에 접속해 대기정보 → SMS정보서비스 항목에 들어가서 개별 신청하면 된다.

★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서비스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의 주요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우리동네 대기질'을 서비스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에어코리아의 지역별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예보 정보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 단순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포털사이트어플에서 광주 서구 미세먼지를 검색하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책

서구와 광주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특별관리지역 공사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살수차와 노면청소차를 주·야간 운행함으로써 도로에 침착된 흙먼지와 타이어 가루 등을 물로 세척·흡입해 비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친환경 자동차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실시간 대기
정보, 예·경보,
알림 설정 등
사용자 맞춤형
기능 제공



건강
칼럼

당뇨약, 한번 먹으면 평생먹어야 하나?



태영21병원
내과 원장
양태영

당뇨로 진단되면 가장 손쉽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얻는다. “당뇨병 별거 아니야, 몇 년이 지나도 멀쩡하잖아” 귀에 솔깃한 말이다. “당뇨병은 밥만 덜먹으면 되는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식탐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은 된다. 이것 저것 실천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편법을 찾게 되는데, “당뇨병에는 돼지감자가 최고지” “어제밤 TV에서 당뇨병 완치약이 나왔다더라” 인터넷을 뒤져보지만 더 혼란스럽다.

오랜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증,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고 이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혈당조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른 합병증인 투석과 같은 신장 질환과 망막병증 역시 미세혈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뇨병의 모든 합병증은 혈관의 문제인 것이다.

그간 수많은 당뇨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치료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24시간 내내 정상혈당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혈당조절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 과체중, 과로 등 생활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개선만 따지다보니 사회생활에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잡곡밥만 고집하고 칼로리를 일일이 따져서 먹는 가 하면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아 무기력하게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필요없다. 우선 설탕, 꿀, 음료수 등

당을 바로 올리는 것은 피하고 당분이 많은 과일을 줄이고 그 외 음식은 어떤 것이라든 자유롭게 먹되 과식하지 않으면 된다.

당뇨로 진단 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을 약물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누구든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슐린과 같은 주사보다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복용약으로, 그리고 약 보다는 음식과 운동만으로 당뇨를 조절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묻는다. 물론 가능하다. 인슐린을 맞다가도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약물복용만으로도 혈당조절이 잘 되기도 하고, 더 꾸준히 노력하여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합병증 없이 당뇨를 관리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개선의 노력도 없이, 혹은 이미 체장손상으로 약물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약을 한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고 합병증에 속수무책으로 방

치된다는 것이다.

2017년 미국당뇨병학회나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당뇨병진료지침에 보면 당뇨병진단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저자 역시 초기에 당조절을 잘 한 경우는 평생을 편하게 약 몇 개만으로 합병증없이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습관개선을 통해 당뇨를 완치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였다. 반면, 증상이 없다고 버티다 결국 합병증이 와서야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인슐린을 맞아야 할 뿐 아니라 평생을 혈액투석, 중풍, 심장질환과 싸워야 한다.

당뇨약은 한번 복용했다고 해서 평생 복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당이 높아서 인슐린을 한번 맞았다고 끊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당뇨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고 현재 당뇨약을 복용 하더라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약도 인슐린도 끊을 수 있다.

보건소 게시판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1:1로 관리해드립니다

기 간	2018. 3. 12. ~ 인원 마감시까지(선착순)
대 상	250명(건강검진결과자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자) ※ 건강위험요인 :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
운영기간	2018. 5월 ~ 11월
내 용	바르게 걷기 이론과 실습, 개인별 보행 자세 분석 및 교정 등
추진방법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개인별 1:1 상담
내 용	(사전·중간·사후검사) 건강검진(6종) 및 의사문진, 건강·영양·운동영역 건강생활습관평가, 목표설정, 건강행태설문조사 (디바이스기기 지원) 신체활동량 기기 배부 (모바일 APP기반 건강관리) 건강·영양·운동 영역별 집중상담 및 교육, 개별 미션수행, 건강콘텐츠 제공
문 의 처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350-4132, 4110, 4136)

「2018년 바르게 걷기(걷기지도자) 2기 교육생 모집」

기 간	2018. 3. 19.(월) ~ 4. 18.(수)
교육기간	2018. 4. 24 ~ 4. 26 (3일) 10:00~17:00 / 50명
장 소	서구청 대회의실
내 용	바르게 걷기 이론과 실습, 개인별 보행 자세 분석 및 교정 등 교육 수료 후 걷기동아리 구성 예정
문 의 처	서구보건소 건강정책팀 (☎ 350-4752, 4753)

예비엄마 건강교실

기 간	2018. 4. 26(목) 14:00~17:00
대 상	서구주민 (임신한 여성)
장 소	서구보건소 보건교육장 3층
참여방법	전화 또는 방문접수(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내 용	분만과 산후관리, 임산부 요ガ, 모유수유 성공법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문 의 처	서구보건소 출산장려팀 (☎ 350-4137, 4159)

한의약 힐링부모교실 회원 모집

기 간	2018년 3월 ~ 인원 마감시까지(선착순)
대 상	50명(영유아 양육자 및 임산부)
장 소	서구보건소 보건교육장 3층
운영기간	2018. 4. 17. ~ 6. 12.(매주 화요일) 10:30 ~ 11:30
내 용	(사전·사후) 건강인식도 변화, 육아자신감, 만족도 조사 (기본교육)한의약 산후관리 및 육아정보, 건강한 아이를 위한 심리교육 (체험활동)베이비마사지, 영양식, 한방천연샴푸 만들기 등 체험교실
문 의 처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350-4123, 4110)

찾아가는 여성직장 금연캠페인 참여기관 모집

기 간	2018년 3월 ~ 마감시까지(선착순)
대 상	8개소(금연상담 희망 기업체의 직원)
장 소	각 기업체 로비 등 상담 가능한 장소
운영기간	연중
방 법	여성이 많은 기업체를 방문하여 캠페인 및 이동금연클리닉 연계 운영
내 용	금연캠페인 및 이동금연상담실 : “금연을 향한 마음다지기” 여성흡연자 대상 여성전용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에 대한 인지도 모니터링(스티커 부착을 통한 체험관 전·후 인지도 조사)⇒ 5ZONE(모형전시, 상담, 포토, 체험, 힐링ZONE) 운영
문 의 처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350-4135, 4722)

찾아가는 고위험군 치매 전수조사

대 상	만75세 진입노인, 만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장 소	상무금호보건지소 2층 치매안심센터, 동 주민센터, 경로당, 대상자 가정 등
내 용	치매선별검사도구 이용
검사결과에 따른 절차	정상 : 추후 1년마다 치매 선별검사 실시 인지저하자 : 협약병원 4개소에서 무료 진단 및 감별검사 실시
문 의 처	상무금호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 350-4761~5, 4185)

詩 읽고 산책하고…광주의 상징적 ‘쉼터’



정인서의 서구를 걷다

39번째 이야기
풍암호수



완연한 봄이다. 봄이면 꽃구경을 하기 위해 꽃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가까운 호수나 유원지, 산을 찾기도 한다. 4월이면 곳곳에서 벚꽃이 연인들의 가슴을 훔친다.

풍암호수는 서구 8景 중의 하나이다. 벚꽃 구경하러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풍암호수만 찾아도 될 성 싶다. 분수도 한 번씩 틀어줄 때면 즐겁다. 자주 틀어주지 않아 아쉽다. 좀 더 횟수를 늘렸으면 한다.

풍암호수공원이 지난해 크게 변했다. 詩가 있는 문학공원이 된 것이다. 풍암호수는 1956년 농업용 목적으로 축조한 저수지였다. 당시만 해도 일대는 광활한 논밭이 인근에 있었다. 지금은 그 논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풍암택지 개발로 인해 저수지가 호수공원으로 바뀌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건강과 휴식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다. 1975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풍암호수는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으로 전통정자와 목교 등도 설치했다. 자연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광주의 상징적 쉼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2.2km 한 바퀴 도는데 20분

호수 주변 산책로는 2.2km로 한 바퀴 도는데는 20여분 걸린다.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려면 세 바퀴 쯤 돌면 충분한 힐링코스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하루 3천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곳이 이제 시가 있는 문학공원이 됐다. 지난해 6월 뛰어난 풍경을 지닌 풍암호수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화(詩畫) 작품이 산책로를 따라 설치됐다. 산책하면서 가끔 한 두 편 쯤 읽고 지나간다면 더 좋을 듯하다.

호수(강만), 무등산(김종), 흔들리며 피는 꽃(도종환), 장미가 길에 나와(임원식), 낮밥(조성국) 등 모두 35편의 시화가 있다. 산책을 하며 읽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주천을 받은 작품들이다. 풍암호수를 산책하기 위해 첫발을 떼면 호수를 배경으로 한 시판이 하나 눈에 띈다. 강만 전 광주문인협회 회장의 ‘호수’라는 시는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기에/호수는 평생 하늘을 품고 살고/하늘은 평생 호수의 품 안을 떠나지 않네”라고 노래를 할 만큼 풍암호수의 풍광을 말해준다.

다시 몇 걸음 걸으면 오른 편에 김종 전 조선대 교수의 ‘무등산’이 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불을 넣는다/귀 먹고 눈 먼 자에게도 불을 넣는다/아아 무등산 고여도 넘치지 않는 바다”라고 말하며 무등산은 우리에게 뜨거운 용기를 주고 드넓은 바다와 같은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공동체의 삶이다.



안도현의 ‘사랑’이란 시는 재미있다. 여름에 매미가 우는 이유는 여름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겁다는 반문을 한다. 또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매미가

안다고 말한다.

고선주는 ‘꽃’을 노래했다. 그는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입에서 꽃이 만발한다고 말이다. 내 안의 꽃은 아이가 말할 때 만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의 심정이 되었다.

자연 섭리도 배우는 생태공원

풍암호수공원은 벚꽃뿐만 아니라 5월에는 장미원, 9월에는 연꽃과 함께 사람들의 눈길을 모은다. 길을 걷다보니 교훈 삼을만한 자연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글귀가 있다.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이다.

“농부가 작대기로 구멍을 내고 콩 세 알을 넣는다. 한 알은 땅의 주인인 별레의 것이요. 한 알은 하늘의 주인인 새의 것이다. 한 알은 하늘과 땅을 빌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뜻이라 한다. 독식하지 않는 삶. 나눠주는 삶. 자연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느니라”

곳곳에 색색의 벤치와 탁자들이 있다. 걷다가 쉬고 싶으면 아무데서나 쉴 수 있다. 야외공연장도 있다. 주말이면 버스킹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건너편에는 ‘행복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작은 폭포도 있는 벽천 분수가 있다.

풍암호수공원에는 운동시설도 있다. 산책하다가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운동기구들이다. 작은도서관도 있다.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1천여 권 정도 책이 있으나 꾸준히 늘고 있다.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동안 교대 근무한다.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이다. 다만 건너편 인근 상가 점주나 대형 트럭 등이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평일엔 그런대로 나은 편이나 주말에는 주차하기 어려울 정도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다.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열 일이다. 따사로운 봄빛에 얼굴이 좀 물들어도 괜찮을 일 아닌가. 막 부화한 어미 오리와 새끼 오리들의 오리 가족 나들이가 정겹다.

눌|재|로|칼|럼

미투, 우리 사회 대변혁의 물꼬다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장

미투바람이 거세다. 2월인가 한 여성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는 이미 바람을 뛰어 넘어 '미투혁명'으로 치닫고 있다. 처음 서지현 검사로부터 미투운동이 촉발됐을 때 우리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힘 있는 검사조차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과 성추행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게 적잖이 놀라웠다. 미투는 법조계로부터 시작해 문화계, 정치계로 확산되는데 이어 온 사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 터지는 뉴스에 적잖이 당황스럽고 부끄럽다. 그동안 가려졌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대하는 게 그리 편하지는 않다. 그러나 미투는 가히 한국사회의 판을 완전히 뒤엎고 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리잡아온 남성 중심적 한국사회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셈이다. 이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풀어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노벨문학상의 후보로 수년간 오르내르며 한국문학의 어른으로 추앙받아온 원로시인 고은이 미투 고백으로 한 순간에 '괴물'로 추락했다. 어디 그뿐인가, 연극계의 대부 이윤택, 영화

감독 김기덕, 시사만화가 박재동 등 내로라하는 한국 문화계의 저명인사들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되며 한 순간에 추락했다.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최일화 등 영화인과 연예인들도 추풍의 낙엽으로 스러져 갔다. 더욱이 이들이 스크린에서 또는 안반극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던 터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 미투 바람은 정치권에도 불어 닥쳤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정무비서가 미투 희생자이며 생방송 고백은 그야말로 미투운동의 정점이었다. 완전 충격의 도가니였다.

봇물 터지듯 터진 미투운동은 계속 되리라 본다. 미투의 성역은 이제 없다. 그동안 피해를 당하고도 드러내지 못했던 여성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자신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기 있는 여성들의 고백에 박수를 보낸다. 피해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그걸 터트린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실, 피해자로 희생자로서 미투운동에 나선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성폭력과 성추행에 노출된 이들이 다시 이를 드러내는 것은 2차 피해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정황을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는 이중고였다. 자연스레 피해는 은폐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녔다.

다. 힘에 의한 폭력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여성들의 빗발치는 폭로에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있다. 혼란 속에서도 미투운동은 그동안 자행되어온 남성위주의 한국사회에 일침을 가했다. 미투고백이 터질 때마다 가해 남성들은 '사랑'이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강변하고 있다는 점이 어이없다. 남성 관점에서 사랑이었고 합의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위계와 권력관계에서 자행된 일이었다. 왜, 저항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당했느냐는 지적은 미투운동이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날마다 터지는, 차마 대하기 불편한 우리 사회의 민낯 드러내기는 건강한 문화만들기의 첫발임을 잊지 말자. 여성이 겪는 성폭력 피해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 모두가 절절이 인식해야 한다.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이런 사회에서 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또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양성평등과 바른 성문화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번 미투혁명이 우리社会의 기본 인식을 바꾸는 대변혁의 물꼬가 되어야 한다. 여성이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 권력에 의한 억압이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서구만평



생활속 법률



위자료와 재산분할

변호사 정훈재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진다. 판례(법원의 법리)는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그 재산의 조성에 타방의 실질적인 협력이 있었다는 반대증거의 제출에 의하여 그 추정이 깨어진다고 본다.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

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협력에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

간단한 예를 들면 아파트를 남편의 명의로 하고 10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부부의 경우 아파트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부인이 그 아파트의 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 예를 들면 자신도 결혼 후 출산 전까지 직장생활을 하여 아파트 장만에 힘을 보태거나 결혼 당시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라는 사실을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한다면 기여한 부분만큼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가 없는 전업주부라도 결혼기간을 고려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절반에 이르는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고 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 등으로 단절되는 경우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문의 : 정훈재 법률사무소 ☎ 264-7735



부음 인사를 휴대폰 계좌로 하면서

유남규(벽진동)

'딩동, 문자 왔습니다'

저녁 늦게 날아온 문자는 지인의 부친께서 작고 하셨다는 부고였다. 고인의 고향은 물론 빈소가 쉽게 달려가기는 어려운 제주도였다. 부음에 이어 덧붙여진 상주의 계좌번호가 다른 때 받았던 휴대폰 부고장과는 다른 점이었다.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멀리 떠나심에 대한 예를 다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죄송스러움을 담아 부의금을 전송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넣고 보니 참 편리해졌다는 생각과 함께 뭔가 썰렁하고 어떤 일을 마치긴 했으나 덜 깔끔하게 어물쩍 마무리 된 느낌이 들었다.

고인의 부음을 문자로 받아 본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막상 단문으로 써진 부음과 계좌번호까지 받고 나니 영개운치가 못했다.

과거에 부음은 어땠나.

옛날 시골집 사립문에 끼워져 있던 부고장. 시멘트 블록 벽돌로 쌓아진 담장 구멍에 꽂혀져 있던 그것을 아마도 지금 나이 40대 중반 이상의 성인이라면 흔하게 봤을 것이다. 맨질맨질한 얇고 누런 봉투 안에 부고(訃告) 또는 부음(訃音)이라고 커다란 붓글씨로 쓴 후 그 뒤에 고인과 상주의 이름이 들어가고 빈소의 위치와 장례식장, 장지를 써 놓았던 90년대까지의 부고장. 휴대폰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부고장이 대세였다. 그런 때와 비교해 볼 때 우린 지금 너무나 단순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인터넷 뱅킹을 하느라 열어 본 컴퓨터에는 지난 몇주간 보지 않은 e메일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새해를 맞아 안부를 묻는 인사도 많았다.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마다 느끼는 허전함을 어

찌 할 수가 없다. 편지의 형식이 무시되고, 하고 싶은 말만 간단히 하다 보니 참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21세기에 여전히 일일이 편지를 써서 통신을 하는 건 불가능 하므로 e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를 쓰기는 하되 다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슴 속에 넣어 둔 사연을 한 올 한 올 글자로 엮는 정겨운 흡적 정도는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춰 “삼가 아뢰옵니다. OOO의 부친께서 영면하셨습니다. 고인의 고향이 신 OO에 모신답니다” 정도의 인사는 올리고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필자 생각이 고루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라도 삶을 마치신 분에 대한 마지막 예의 정도는 지키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본다.

스.IsSuccess

독자투고는 유남규님의 글이 선정됐습니다. 저희 소식지는 형식과 주제의 제한이 없으며 원고지 10매 분량으로 매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gjseogu@korea.kr 전화 : 360-7584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번(농성동) 서구청 홍보실 구보편집팀 앞

‘마재마을신문’ 2호가 떴다



금호2동 주민이 참여해 만든 ‘마재마을신문’ 2호가 지난 15일 발간됐다.

타블로이드판 8쪽 분량의 신문에 우리동네 일꾼을 비롯해 착한 가게, 마을소식 등 마을 곳곳에 감춰진 얘기를 담았다. 이웃들의 미담과 동네 맛집도 소개했다.

마을기자단이 구성된 것은 지난해 9월. 금호2동 주민자치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가치를 살리고 공유하기 위해 마을신문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초등학생부터 주부, 통장에 이르기까지 20여 명이 기자단으로 참여했다. 뉴스1 박영래 기자의 도움을 받아 매주 월요일 저녁 주민센터 2층 작은 도서관에 모여 취재 요령과 기사작성법 등을 배웠다. 신문 제호는 금호2동의 옛 이름인 ‘마재마을’에서 따왔다.

이번 제2호는 지난 해 10월 창간 준비와 12월 창간호에 이어 3번째 신문이다. 더욱 알찬 신문을 만들기 위해

기자단은 여전히 글쓰기를 배우고 신문제작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하며 머리를 맞대 경험부족을 메워가고 있다.

신문이 짧은 기간에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자치회도 신문제작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분기별로 연간 4회 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격월이나 매월 발행까지도 검토 중이다. 발행부수도 1만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형근 금호2동 주민자치회장은 “내 이름이 신문에 실리고, 내가 작성한 기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읽히면서 마을기자단의 소명의식도 더욱 굳건해졌다”면서 “기자단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마을주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호 주민기자

“풍요·평안기원”…신암마을 당산제



정월 대보름인 지난 2일 전국 각처에서 대보름 행사가 열렸다. 풍암동 신암마을 당산어린이공원에서도 당산제가 개최됐다. 당산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지역공동체적 의례. 이를 통해 마을의 발전과 동네 화합을 다져왔다.

풍암동 신암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겨온 250년 된 왕버들나무에 당산제를 지내왔다.

마을주민 일부가 그 맥락을 이어오다가 지난 2005년 ‘풍암골당산제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전통세시풍속을 계승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축제로 거듭났다.

이날 당산제는 식전행사인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초헌, 매울기기, 아현, 재배, 종헌, 첨작, 소지, 음복, 헌신 등 전통세시 풍속을 그대로 재현했다.

당산제가 끝난 뒤엔 주민들이 한지에 적은 소원을 소원지탑에 걸어 태우면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지역주

민의 화합을 기원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행해지는 당산축제여서 나름 이색적이고 잊혀져가는 우리네 전통 세시풍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서 참으로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

신암마을 주민들의 화합된 모습이 통장단과 여러 자생단체 회원들의 봉사정신과 어우러지면서 마을의 평안과 안정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올려지고 소원지탑에 주민들의 소원을 적어서 불태우니 보름달 아래서 다들 하나가 되어주는 모습 또한 참으로 아름다웠다.

소원지탑에서 솟아오른 불꽃처럼 올한해도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당산제축제가 오랜 세월 그 맥락이 유지되길 빌어본다.



이난향 주민기자

광천동

350-4282, 4288

어르신을 위한 오곡밥 잔치



광천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는 정월대보름을 앞둔 지난달 27일 오곡밥과 나물 등을 지역 어르신 100여 명에게 대접했다. 보장협의체도 저소득층 20세대 가정을 방문해 부림세트를 전달했다.

상무2동

350-4362, 4363

'온동네 행복상자' 전달



쌍촌복지관, 시영복지관, 상무2동 행정 복지센터, 자생단체가 지난 15일 쌍촌복지관에서 장두익 치과 후원을 받아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 250박스를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했다.

유덕동

350-4302, 4308

마을텃밭 감자심기



유덕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노경선)가 지난 13~14일 이를 동안 덕흥동 마을텃밭에 퇴비를 뿌린 뒤 감자를 심었다. 새마을부녀회는 오는 6월께 재배한 감자를 수확해 관내 돌봄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농성1동

350-4242, 4248

돌봄이웃 건강 밀반찬 나눔



농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위보환)는 지난 12일 농성1동주민센터에서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돌봄이웃 50세대에 각각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농성2동

350-4262, 4263

'건강검진지원 협약' 체결



농성2동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가 '건강검진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매달 농성2동에서 발굴·추천한 주민 5명에게 11개 항목에 걸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정1동

350-4382, 4383

새 신을 신고 놀아보자 풀짝!



화정1동 보장협의체(위원장 정훈조)는 지난 15일 화정1동주민센터에서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돌봄 청소년 10명에게 운동화, 상품권을 각각 전달하여 새 학기 새 출발을 축하했다.

동천동

350-4601, 4602

“나무야, 쑥쑥 예쁘게 자라렴”



동천동 통장단을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과 동 직원 등 40여 명은 새봄을 맞아 지난 7일 동천동 광주천변에서 비탈면 수목식재구간 가지치기 작업을 벌였다.

양3동

350-4222, 4227

학생 장학금 전달



양3동 보장협의체(위원장 장종연)와 복지통장단 30여 명은 지난달 26일 양3동 주민센터에서 '한가족 장학생' 9명에게 모두 33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화정3동

350-4422, 4425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화정3동 보장협의체(위원장 박준복)가 나옥희 광주·전남 심리상담센터장(☎373-5937)의 재능기부를 받아 화정3동 주민 상담실에서 '마음치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농성1동

350-4243

요가교실



- 화·목요일 오후 3시~5시 (주2회)
- 주민센터 3층 프로그램실
- 난이도 있는 동작보다는 노년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본동작들로 구성해 운동

유덕동

350-4313

요가교실



- 월·수·금요일 오전 11시~12시 (주3회)
- 버들주공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 몸의 균형과 유연성 향상, 신체 밸런스 맞춤 등을 통하여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운동

풍암동

350-4524, 4532

생활꽃꽂이교실



-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주1회)
- (수강료 : 월 15,000원)
- 동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 집안이나 여러 가지 실내 인테리어 장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꽃꽂이 실습

화정3동

350-4423

어린이 요가교실



- 금요일 오후 4시~5시 (주1회)
- 주민센터 지하 프로그램실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비뚤어진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바른 골격을 유지시키는데 도움

농성지하도 교통전면 통제 안내

전면통제기간 2018. 4월 초순 ~ 2019. 11월
 전면통제사유 급경사 사고 및 침수예방을 위한
 구조개선공사
 ※ 총연장 215m, 경사도 8% ⇒ 총연장 300m, 경사도 5~6%
교통체계 변경안내

구분	변경내역
좌회전	상록회관 ⇒ 건강관리협회 방향 좌회전 : 금지 화정사거리 ⇒ 광천터미널 방향 좌회전 : 금지
	(대책) 화정사거리 ⇒ 서석고 입구 방향 우회전 이용
우회전	화정사거리 ⇒ 건강관리협회 방향 우회전 : 금지 (대책) 화정사거리 ⇒ 서석고 입구 방향 우회전 이용
	상록회관 ⇒ 화정사거리 지하도 통행폐쇄 (대책) 측도(임시 가설도로 설치) 이용 지상 직진

※ 공사시행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613-6893)

원하는 시기에 국민연금 받자!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형편에 따라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이나 최대 5년까지 연기하여 받는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53~'56년생	만 56세부터	만 61세	만 66세까지
'57~'60년생	만 57세부터	만 62세	만 67세까지
'61~'64년생	만 58세부터	만 63세	만 68세까지
'65~'68년생	만 59세부터	만 64세	만 69세까지
'69년생 이후	만 60세부터	만 65세	만 70세까지
지급률	70% ~ 99.5%	100%	100.6% ~ 136%
신청시기별 변동률	1개월 0.5% 감액 최대 30% 감액	-	1개월 0.6% 증액 최대 36% 증액
신청서류	청구서, 신분증사본,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전자신고(www.nps.or.kr)		
문의전화	국번 없이 135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제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이란?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
 ※ '17년(시범사업)~'20년까지 한시사업 운영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지원

※ 성장유망업종 본산업 및 전·후방산업(499개업종)

지원내용 청년 3명당 1명분의 인건비를 연 2,000만원 한도 지원(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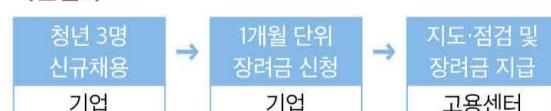
- 지원인원 한도 : 피보험자수의 30%이내 지원
(최대 30명분까지 한정)

※ 청년 3명 채용 후, 1명 더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0.33명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 2명 더 채용한 경우에는 0.66명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

※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①청년(만15~34세) 3명 이상 정규직 채용
 ②신규채용 청년을 포함한 총 근로자수 유지
 ③4대 사회보험 가입 ④최저임금 준수

지원절차



문의 광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제주 포함)
 ☎ 609-8654, 8657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광산구, 영광, 합평)
 ☎ 960-3201, 3209

4월 우리동네 변호사

우리동네 변호사는?

「서구 법률자문단」에 위촉된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월 4회), 생활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내용 :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 민사 : 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가사 : 혼인·이혼, 호적, 상속, 기타
- 민생침해 : 대부업 및 신용카드, 단계계, 소비자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관련

• 상담일 및 상담장소

- 첫째, 셋째주 월요일 : 운천 열린사랑방(마륵복개로 188)
- 둘째, 넷째주 월요일 : 서구청 7층 협업회의실

• 상담시간 : 오후 2시~4시(1명당 2~30분내, 2시간 소요)

• 신청방법 : 기획실 사전 전화 접수

• 신청자격 : 서구 주민 및 서구 사업체 운영자

※ 1일 상담인원 한정으로 초과 신청은 운영계획상 일정 조정합니다.

4월 상담 일정

• 1차 : 2018. 4. 2.(월) 오후 2시~4시 (운천 열린사랑방)

• 2차 : 2018. 4. 9.(월) 오후 2시~4시 (서구청 7층 협업회의실)

• 3차 : 2018. 4. 16.(월) 오후 2시~4시 (운천 열린사랑방)

• 4차 : 2018. 4. 23.(월) 오후 2시~4시 (서구청 7층 협업회의실)

문의 서구청 기획실 인구법무통계팀(☎ 360-7319)

불법사금융 범부처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2018. 2. 1. ~ 4. 3.(3개월간)

신고대상 최고금리 위반(연 24%),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방법 신고방법 : (전화) 금감원 ☎ 1332

서구청 경제과 ☎ 360-7162

경찰청 ☎ 112,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 「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서구청 경제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 ('17년 귀속 법인소득)

납부기한 2018. 4. 30.(월) 까지

납세자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문의 서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360-7827)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2012.7월 이후 출고된 차량 중 유로5·유로6 차량 제외)

납부 기간 2018. 3. 12.(월) ~ 2018. 4. 2.(월)

납부 의무자

부과기간 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

(단,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말소나 소유권 변동 시 일할계산)

납부 방법 및 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인터넷 지로납부

- CD/ATM납부 : 공과금납부 → 국세 → 환경개선부담금 → 조회및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http://www.wetax.go.kr>) 및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광주은행)로 계좌이체 (고지서 참조)

문의 서구청 녹색환경과(☎ 360-7964, 7651~3)

서구청 카카오플러스 친구 오픈

카카오톡으로 서구청 친구 맺고

신속하게 서구소식 받아보세요.

‘맞춤형 정보를 선택해서 받아 볼 수 있어요!’

오픈일시 2018. 3. 21

가입방법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 ⇒ ‘광주서구청’검색 ⇒ 친구추가



- ①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 클릭
- ② ‘광주서구청’ 검색
- ③ 친구추가 클릭

오픈기념 이벤트

일시 : 2018. 3. 21.(수) ~ 3. 31.(토) / 추첨 : 4. 2.(월)

방법 :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후 ‘이벤트 참여’ 메세지 전송
문의 서구청 홍보실 뉴미디어팀(☎ 360-705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다양한 공익침해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279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켜주는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입니다.(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공익신고 방법은?

- 신고 : 홈페이지(<http://1398.acrc.go.kr>), 부파·공익신고 앱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파·공익침해 신고센터)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알아두면 편리한 선거정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 의원재선거(서구갑)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은 2월 13일부터 구·시의원 및 장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자체없이 공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 정보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 <http://info.nec.go.kr>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배너 클릭 → 선거통계시스템 접속 후 ‘예비후보자 명부’ → ‘선거명’ 클릭 → ‘시도 및 선거구’선택 → 예비후보자 화면이 나오면 ‘성명’클릭 → 기본정보, 전과, 학력 검색가능

※ 예비후보자 제도란?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서구선거관리위원회(☎ 362-7294)



4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018. 3. 17. (토)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 접수방법 :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강좌(선착순)

상록도서관

문의 : ☎ 350-4580, 4589

과정명	시간	대상(인원)	교육내용	준비물
인문학 산책 「조선의 음식 문화사」	4/6~4/27(4회) (매주 금)14:00~16:00	지역주민 (30명)	18세기 조선의 음식 문화사(18세기 조선 사람들이 맛본 중국, 일본, 서양의 음식과 음식문화 등)	
도서관 주간 캘리그라피로 우리 집 가훈 만들기	4/12(목) 14:00~16:00	지역주민 (20명)	캘리그라피로 우리 집 가훈 만들어보기	
도서관 주간 인형극 공연 「누가 내 머리에 뚫었어?」	4/14(토) 15:00~16:00	누구나 (70명)	「누가 내 머리에 뚫었어?」인형극 및 마술쇼	
다독다독 독서클럽	4/14(토) 14:00~16:00	초등3~6학년 (20명)	책 속의 주인공 일대기 알아보기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재료비 (1,000)
도서관 주간 김경희 작가 초청강연 「괜찮아 아저씨」	4/15(일) 14:00~16:00	누구나 (50명)	작가의 1인 인형극, 강연 및 활동 워크숍 등	
도서관 주간 리딩 푸드 「사랑 듬뿍 달콤 케이크」	4/18(수) 16:00~18:00	초등1~6학년 (20명)	가족 관련 도서를 읽고, 가족의 사랑을 <사랑 듬뿍 달콤 케이크>로 표현해보기	
문화가 있는 날 「토탈공예」	4/25(수) 14:00~16:00	지역주민 (15명)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나만의 젤 양초 만들기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문의 : ☎ 350-4586

과정명	시간	대상(인원)	교육내용	비고
찾아가는 빛그림 동화구연	4/3, 4/17(화) 10:30~11:30 어린이집 2개관	5세~7세 유아 (40명 내외)	“강아지똥” 책 소개 및 색다른 기법인 빛그림 자극을 활용한 동화구연감상	

※ 신청 기관 협조사항 : 빛을 최대한 차단(암막 커튼 등) 할 수 있는 공연 장소 제공

서구공공도서관

문의 : ☎ 654-4306

과정명	시간	대상(인원)	교육내용
책 문화day (플라워디자인)	4/25(수) 14:00 2층 생활문화센터	성인 (15명)	봄꽃 미니정원 만들기
CINEMA LIBRARY	4/19(목) 16:00, 3층 꿈시루	지역주민 누구나	모아나
도서관 주간 행사	엄마랑 함께하는 감성바느질 책 속 한 줄이 있는 디퓨저 만들기	4/13(금) 14:00 2층 생활문화센터 4/14(토) 14:00 1층 로비	15팀 부모랑 아이(2인 1팀) 지역주민 선착순 (100명) 실과 바늘로 어린왕자를 만나다 액체타입의 고급 샤큐 만들기
원화전시	4/5(목)~30(월) 서구문화센터 계단(상시)	지역주민 누구나	보리밭은 재미있다

※ 교육내용과 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월 문화캘린더

※ 주최측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서구청 문화체육과 360-7225
국립광주박물관 570-7000
유스퀘어문화관 360-8437국립아시아문화전당 1899-5566
광주문화예술회관 613-8333(토, 일, 공휴일 613-8240)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232-1501

Sun 일	Mon 월	Tue 화	Wed 수	Thu 목	Fri 금	Sat 토
1 시아의 여행 (~4.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극 수상한 흥신소2 (~4.22, 기분좋은극장) 연극 나의 PS 파트너 (~4.29, 충장아트홀)	2 월요콘서트 '팬타곤 연주이야기' (19:30,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3 <유아> 쑥! 상상 음악 여행 (~29일, 화 10:30~12:00,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2017. 6. 17 ~ 2018. 4. 15 여행의 기쁨에서 시작되는 시아의 여행 [리노는 빨리] [Let's go for a trip]	5 대만국가교향악단 (피아노: 백건우) (20:00,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6 2018 'Jazz History Music' (19:30, 광주아트홀)	7 광주시립오페라단 '오페라 아이다' (15: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8 	9 월요콘서트 '봄과 사랑의 시를 노래하다' (19:30,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10 	11 광주시립합창단 '미국순회기념공연-미국여행 II'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12 광주시립교향악단 '2018 교향악축제 프리뷰: 소네트'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3 2018 '이끈음악회 뮤지컬 갈라' (19:30, 광주아트홀)	14 Two Flutes Concert (16:00,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토요문화교실 '한지로 조명등을 만들어요' (10:00,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민속체험관)
15 치유 심리드라마 '공감' (1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제36회 고싸움놀이축제 (고싸움놀이테마파크)	16 월요콘서트 'Breath' (19:30,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17 	18 인형극 '애기동풀' (10: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15회 정기연주회 '동행'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9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해피버스데이, 피아졸라' (18: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 연극 '크레이지투' (~2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1 풍암호수공원 공연 (19:00, 풍암호수 야외무대) 시작과 끝 (15:00, 19:00, 빛고을시민문화관)
22 	23	24 중앙레이디스 앙상블 연주회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5 클론 강원래의 이야기 노래선율 (11: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리머스의 '쓰콘' (19:30,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26 	27 광주시립창극단 제52회 정기공연 '전통창극 수궁가' (~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8 풍암호수공원 공연 (19:00, 풍암호수 야외무대)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 (~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제12회 광주어린이박물관학교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29 	30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31 	32 			

영화상영

상록도서관

더 매직 :
리틀톰과 도둑공주

4. 1(일) 오후 2시
전체관람가(78분)
애니메이션, 모험

노아의 방주 :
남겨진 녀석들

4. 22(일) 오후 2시
전체관람가(85분)
액션, 드라마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8시

- 4. 5 연희단 「소리마디」초청 풍물한마당
- 4. 12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초청 가야금 연주회
- 4. 19 창작국악그룹 「노라」초청 창작음악
- 4. 26 박신영초청 판소리

장소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
입장권 무료 (주민 누구나)

문의 ☎ 350-4557